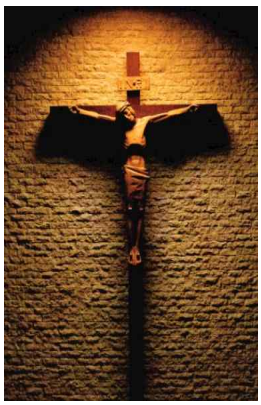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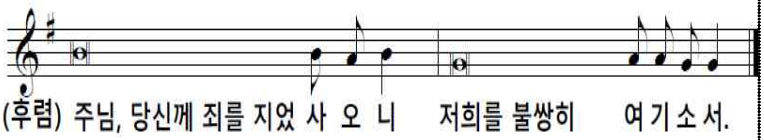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창세 2,7-9; 3,1-7

화답송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 5,12-19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 마태 4,1-11

성가 입당성가 329 미사 시작
예물준비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 성 체 188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엘리사벳
김종욱 베네딕도	박지은 카타리나
본당에서 믿음속에 살다가 선종하신	
강주옥 소피아	요셉회
〃 원용한 요아킴	요셉회
〃 김종목 리차드	요셉회
〃 강세랑 엘리사벳	요셉회
〃 조화장 안나	요셉회
〃 강견대 마리아	요셉회
〃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요셉회
〃 김화자 소화데레사	요셉회

생미사	봉헌
본당 성경공부 1학기 개강 감사	김효주 수녀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마리아
방지영 바올리나 순산 기원 3월 6일	하태일 안드레아
이병국 생일축하	이지훈 아네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익명
연령회 회원님들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2월 26일	조소연	김규헌	진달래	진달래	김영숙	한서희 -	
3월 5일	김진수	백승민	이경자	이경자	김종선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성경공부(BIBLE ACADEMY) 1학기 개강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히브 4,12

대상: 교우분들 누구나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개 강	과 정	시 간	장 소	담 당
2/26 오늘	구약	매주일 1시	다미아노홀	효주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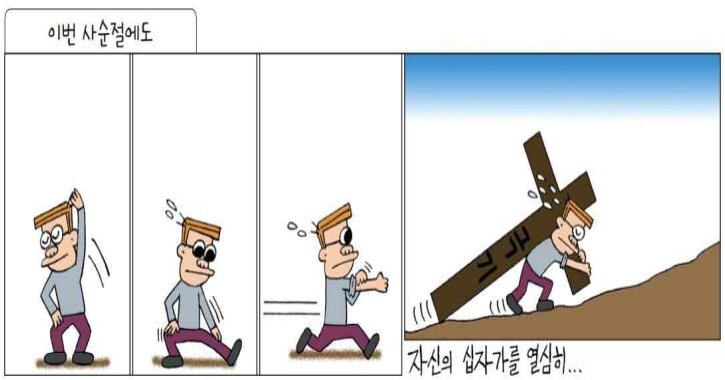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 안에서 성가연습과 미사 반주를 해주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사순시기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 3(금)	울뜨레아	각 단체마다 4명 필요 : 십자가 1 주송1 초2
3/10(금)	요셉회, 성모회	
3/17(금)	청년회	
3/24(금)	양업회, 성령기도회	
3/31(금)	연령회	
4/ 7(금)	사목회, 단체장, 전례말씀봉사자	
십자가의 길 시간, 장소 : 매주 금, 7Pm, 윗 성당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이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산까지 걸으며 기도하던 데서 유래합니다.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에 초대합니다.

▶사순시기 공동 실천사항

1) 본당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참석하려 노력하기

2) 매일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지향: 지진, 전쟁, 가난, 질병, 소외등으로 고통받는 이들 + 한반도 평화기원

3)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하루에 5번이상 하기
예/ 가족, 이웃, 하늘, 바다, 바람, 나무등. 나한테도 거울보고 사랑한다, 고맙다고 격려해주기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신뢰회복의 때

복음에서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성공·권력·명예의 유혹을 받으면서, 성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신뢰감과 일치 그리고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느님 계획에 전적으로 일치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받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반면에,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기 일쑤인데 그 뼈저리게 잘못된 내용은 1독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에 의심을 풀어보라는 악마(뱀)의 유혹에 그만 철딱서니 없게 홀딱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너희더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 이유는 따먹으면 하느님 같이 되니까 금지시킨거야, 바보들아. 너희가 하느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비참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거야. 너희의 자유도 억압당하고 있어. 따 먹어봐! 비참한 너희의 현 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어 하느님처럼 된다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바로 하느님이 되어버려, 어서 따 먹어봐!"

진정 우리의 원조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인간 교만함의 극치를 드러내보였습니다. 악마의 유혹이 죽음의 길인데도 서슴없이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다준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또 사순절이 도래했습니다.

작년 사순절에도 제대로 준비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진정 성부 하느님께 순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신뢰 회복해 보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40일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순절 여정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김 요안 세례자 요한 신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황중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ㅂ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요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교육관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교육관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3A
청년회	첫째 주일 12:30	교육관2A
청년찬양팀(야훼이레)	1,2째 토 15:00	교육관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풍물패	2~5 주일 14:00	교육관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교육관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1B
꾸리아	셋째 주일 12: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교육관2A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악마의 유혹'
후앙 데 플랑데스 作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지진, 전쟁, 가난, 질병, 소외등 고통받는 이들+ 한반도 평화 기원 위해 매일 주모경 바치기 -밤 9시에 기도중에 만나요!